

## 영남 지역 중년여성의 화장품 사용 및 피부관리 실태 파악 연구

정민경·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 The Study of the use of Cosmetics and Skin Care of Middle-aged Women in Young-nam Province

Min-kyeong Jeong · Wang-keun Yoo \*

School of Public Health, Daegu Haany University

Professor, School of Public Health, Daegu Haany University \*

(2003. 9. 7 접수)

#### Abstract

A study on skin care of middle-aged women was conducted to develop proper skin care program. The study was performed from January 25, 2003 through March 24, 2003 by using questionnaires. The subjects were 380 from some area in Youngnam province. All subjects were females from 40 to 59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6.8% of them was from 40 to 44years old; 61.3% 'high school graduate' ; 61.1% 'housewife' ;89.2% 'married' ;76.1% 'middle class' ;55.8% 'living in small or medium sized city' .

In the case of physical health conditions, 55.8% of the respondents was in good health and 63.9% answered that their face skins were healthy. Those who don't drink were 54.5%, and those who don't smoking were 92.9%.

2. In case of the knowledge level of skin care,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riables of education, occupation, and economic status. According to the knowledge level of skin care by physical health conditions, it was highest in the case of physically healthy respondents(7.77 point). Those who do not smoke marked higher knowledge level of skin care than those who smoke. Those who exercise also marked

higher knowledge level of skin care, than those who don't exercise.

3. 86.8% of the subjects experienced the massage at home.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riable of education and place of residence.

The knowledge and habit of skin care of middle-aged wom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variable of education, economic status, and place of residence. Therefore, related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relating to the skin care must make effort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for effective skin care for middle-aged women in order to enhance the knowledge level of skin care and information about skin health.

key words: skin care(피부 관리), knowledge(지식), massage(마사지), information(정보)

\*Corresponding author : Wang-keun Yoo

E-mail : wkyoo@dh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중년은 일반적으로 40세를 전후하여 60세까지로 정의하며(동아새국어사전,1996), 특히 이 시기의 여성은 신체적 노화와 폐경이라는 생리적 변화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은 물론, 신체의 나약함을 감지하므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다(서연옥,1996). 이러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은 노화를 시각적으로 느끼는 피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부 관리의 개념이 미적인 관점보다는 건강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질병치료의 개념에서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질적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피부 관리는 신체와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찾는 것이고, 아름다운 몸매유지를 위한 건강관리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건강하고, 풍요로운 중년을 위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피부, 특히 안면피부는 타인에게 노출되므로 미관상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안면피부는 개인의 건강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개인의 관리방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신체적인 노화가 주류를 이루는 중년에는 더욱 가속화되므로, 중년여성에게는 더욱 정확한 지식과, 합리적인 관리 및 습관이 요구된다. 여성들이 실제로 정확하지 못한 지식, 비합리적인 관리와 습관 등으로 피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다. 안면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로서는 생리적 요인(피지분비이상, 내분비이상, 대사활동이

상, 순환계이상), 영양학적요인(피부세포의 영양결핍, 식습관), 외부 환경적 요인(자외선, 방사선, 오염된 공기, 바람, 기온변화, 건조공기), 심리적 요인(스트레스), 생활요인(수면 및 운동부족, 피로, 잘못된 다이어트), 잘못된 피부 관리요인(알칼리성 비누 과용, 화장품 성분, 과도한 필링, 화장품 사용지식 부족), 내과적 요인(내과질환, 임신 및 출산)등을 들 수가 있다(윤여성, 1996).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성이 없으며 주름이 많아지고 불규칙한 색소침착과 함께 증식성 병변이 나타난다면 피부는 노화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게 유지시켜서, 아름답고 건강하며 보다 젊어보이는 피부상태가 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년기의 피부 관리 목적일 것이다(Eckstein,1988). 과거의 피부 관리에 대한 실태에 대한 연구들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고령화시대가 도래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많이 높아진 점등을 감안할 때 중년여성들의 피부 관리 지식, 관리실태 등의 연구는 앞으로 피부관리 관련 사업이나 학문연구에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여성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과 관리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피부 관리 습관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피부 관

리실태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부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피부관리 습관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수준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들이 피부 관리를 위하여 활용하는 방법들과 활용 빈도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 및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 거주하는 만 40-5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문화센터, 재래시장 및 대형 마트, 피부 관리실 등에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1월 25일부터 2003년 3월 24일까지 2개월간이었다.

### 2.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지는 대구 및 경산시 주민 15명을 임의 선정하여 사전조사(pre-test)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6문항, 건강수준 및 보건 행태를 묻는 7문항, 피부 관리에 관한 기초지식을 묻는 10문항, 관리 습관을 묻는 7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이는 김선혜(2001)와 김인숙(1998)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작성은 피부 관리실 원장, 마트 및 문화센터 근무자,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관해 충분히 교육하여 이해시킨 후 조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위의 장소에 설문지를 1-2주일간 비치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에게 자기 기입식으로 응

답하도록 하였다.

### 3. 자료 처리 및 분석

총 42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387매 중 잘 못 기재되었거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응답지는 폐기하고, 총 380매(조사대상 420매의 90.47%)를 SPSS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T-test, F-test,  $\chi^2$  분석을 시행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40-44세가 36.8%, 45-49세가 31.6%, 55세 이상이 18.2%, 50-54세가 13.4%이었다<표 1>. 학력별로는 고졸이 61.3%, 중졸이하가 24.2%, 전문대졸이상이 14.5%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전업주부가 61.1%, 결혼상태는 기혼이 89.2%이었다. 경제상태별로는 중류층이 76.1%, 거주지별로는 중소도시 55.8%, 대도시 31.8%, 읍/면 지역 12.4%순이었다.

<표 1>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

구분	인원수 (n=380)	% (100.0)
<b>연령(세)</b>		
40-44	140	36.8
45-49	120	31.6
50-54	51	13.4
55-59	69	18.2
<b>학력</b>		
중졸이하	92	24.2
고졸	233	61.3
전문대졸이상	55	14.5
<b>직업</b>		
무직, 전업주부	232	61.1
유직	148	38.9
<b>결혼상태</b>		
미혼	10	2.6
기혼	339	89.2
독신(이혼, 별거, 사별)	31	8.2
<b>경제상태</b>		
상	34	8.9
중	289	76.1
하	57	15.0
<b>거주지역</b>		
대도시	121	31.8
중소도시	212	55.8
읍, 면	47	12.4

**2.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 및 보건 행태**

신체건강상태는, 보통 55.8%, 건강한 편 33.4%, 나쁜 편 10.8%이었다<표 2>. 피부상태는 보통이 63.9%이었다. 음주의 경우는 하지 않는다가 54.5%, 한다가 45.5%이었고, 흡연의 경우는 92.9%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적인 운동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1.8%가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고, 현재의 질병여부에서는 83.7%가 질병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이하, 7시간이 각각 30.0%, 8시간

이 28.2%, 9시간 이상이 11.8% 순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 및 보건 행태

구분	인원수 (n=380)	% (100.0)
<b>건강상태</b>		
건강한 편	127	33.4
보통	212	55.8
나쁜 편	41	10.8
<b>피부상태</b>		
건강한 편	107	28.2
보통	243	63.9
나쁜 편	30	7.9
<b>음주</b>		
예	173	45.5
아니오	207	54.5
<b>흡연</b>		
예	27	7.1
아니오	353	92.9
<b>일상적인 운동여부</b>		
예	145	38.2
아니오	235	61.8
<b>현재의 질병여부</b>		
예	62	16.3
아니오	318	83.7
<b>평균 수면시간</b>		
6시간 이하	114	30.0
7시간	114	30.0
8시간	107	28.2
9시간 이상	45	11.8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수준**

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수준을 10점 만점으로 모른다 라고 응답하거나 틀린 응답에는 점수를 주지 않고, 정답에만 1점을 주어 점수화하였다<표 3>.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8.11점, 고졸 7.49점, 중졸이하 6.82 점 순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지식수준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직업의 경우, 유직이 7.70점, 무직, 전업주부가 7.24점으로 직업을 가진 여성이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경제상태별로는 상류층이 7.68점, 중류층이 7.53점, 하류층이 6.72점순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특히, 본 연구에서 학력, 경제상태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김봉인(1999)의 연구와 김복희, 남철현(1998)의 연구와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혼, 별거, 사별등 현재 독신인 여성들은 피부관리에 관한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연령이나 거주지역은 조사 대상자들의 피부관리에 관한 지식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에 관한 지식 수준

구 분	M±SD	t or F
<b>연 령(세)</b>		
40-44	7.50± 1.86	0.15
45-49	7.40± 1.84	
50-54	7.31± 2.40	
55-59	7.36± 1.96	
<b>학 력</b>		
중졸이하	6.82± 2.39	8.36**
고졸	7.49± 1.83	
전문대졸 이상	8.11± 1.21	
<b>직 업</b>		
무직, 전업주부	7.24± 2.00	4.98*
유직	7.70± 1.83	
<b>결혼 상태</b>		
미혼	7.30± 2.71	1.54
기혼	7.47± 1.86	
독신(이혼, 별거, 사별)	6.84± 2.50	
<b>경제 상태</b>		
상	7.68± 1.80	4.50*
중	7.53± 1.86	
하	6.72± 2.30	
<b>거주 지역</b>		
대도시	7.46± 2.00	0.30
중소도시	7.44± 1.93	
읍, 면	7.21± 1.91	

( p<0.05 \*, p<0.01 \*\* )

#### 4. 건강수준 및 보건 행태에 따른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수준

조사 응답자의 건강수준 및 보건행태에 따른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수준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이 7.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7.37점, 나쁜 편이 6.5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흡연의 경우는 하지 않는다가 7.53점, 한다가 5.9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일상적인 운동 여부에서는 한다가 7.67, 하지 않는다가 7.2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나,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건강한 피부일수록 지식수준이 다소 높았으며, 음주여부, 현재의 질병여부, 수면시간과 지식수준의 상관성은 없었다.

**<표 4> 건강수준 및 보건행태에 따른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수준**

구분	M±SD	t or F
<b>건강 상태</b>		
건강한 편	7.77±1.84	6.07**
보통	7.37±1.79	
나쁜 편	6.59±2.69	
<b>피부 상태</b>		
건강한 편	7.62±1.94	2.25
보통	7.41±1.84	
나쁜 편	6.77±2.66	
<b>음주 여부</b>		
예	7.50±1.97	0.60
아니오	7.35±1.93	
<b>흡연 여부</b>		
예	5.93±2.88	17.84**
아니오	7.53±1.81	
<b>일상적인 운동여부</b>		
예	7.67±1.64	3.91*
아니오	7.26±2.10	
<b>현재의 질병여부</b>		
예	7.31±2.21	0.25
아니오	7.44±1.89	
<b>평균 수면시간</b>		
6시간 이하	7.21±2.06	1.39
7시간	7.71±1.88	
8시간	7.39±1.92	
9시간 이상	7.27±1.86	

( p<0.05 \*, p<0.01 \*\* )

### 5. 피부관리 습관

중년여성의 피부 관리 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항목으로 가정에서의 마사지 경험여부, 기초화장품의 사용종류, 썬크림의

사용여부, 피부 관련 지식의 적용여부, 오래된 화장품 폐기여부, 화장품 구입시 유통기한 확인여부 등을 선택하였다. 가정에서의 마사지 경험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86.8%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13.2%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5>. 이 결과는 김인숙(1998)의 여대생들을 조사대상자로 한 연구에서 경험없다는 응답이 82.9%를 나타낸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노화된 피부를 가진 중년여성이어서 피부노화를 감지하여 홈케어로서 마사지를 시도해보는 것에 반해 김인숙(1998)의 경우에는 피부상태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을 20대 초반의 여성이라는 차이일 것이다. 학력별로는 사용경험이 있다는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98.2%로 가장 높았고, 고졸 88.8%, 중졸이하 75.0%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거주지역별로는 사용경험이 있다는 경우 대도시 93.4%, 중소도시 84.9%, 읍/면지역 78.7%이었다(p<0.01). 연령에 있어서는 50-54세에서 마사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0.2%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며, 직업, 결혼상태, 경제상태와 마사지 경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5> 가정에서의 마사지 경험여부

%(명)

	있다: 86.8(330)	없다: 13.2(50)	계: 100.0(380)	$\chi^2$
<b>연령(세)</b>				
40-44	89.3	10.7	100(140)	5.73
45-49	87.5	12.5	100(120)	
50-54	90.2	9.8	100(51)	
55-59	78.3	21.7	100(69)	
<b>학 력</b>				
중졸이하	75.0	25.0	100(92)	18.30**
고졸	88.8	11.2	100(233)	
전문대졸이상	98.2	1.8	100(55)	
<b>직 업</b>				
무직, 전업주부	84.9	15.1	100(232)	1.94
유직	89.9	10.1	100(148)	
<b>결혼 상태</b>				
미혼	80.0	20.0	100(10)	0.72
기혼	87.3	12.7	100(339)	
독신(이혼, 별거, 사별)	83.9	16.1	100(31)	
<b>경제 상태</b>				
상	88.2	11.8	100(34)	3.66
중	88.2	11.8	100(289)	
하	78.9	21.1	100(57)	
<b>거주 지역</b>				
대도시	93.4	6.6	100(121)	7.95*
중소도시	84.9	15.1	100(212)	
읍,면	78.7	21.3	100(47)	

( p<0.05 \*, p<0.01 \*\* )

기초화장품의 사용종류에 대한 응답으로는 로션 85.5%, 스킨토너 81.1%, 영양크림 80.8%, 에센스 71.8%, 아이크림 54.2%, 아스트리젠트 35.3%순이었다<표 6>. 대체로 로션, 스킨토너, 영양크림, 에센스등 일반기초화장품의 사용율은 높은 편이나,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아이크림, 아스트리젠트 등의 사용율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화장품의 정확한 용도와 적절한 사용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표 6> 기초 화장품의 사용 종류

(복수응답: N = 380)

구 분	%(명) 100.0(380)
스킨토너	81.1(308)
아스트리젠트	35.3(134)
에센스	71.8(273)
아이크림	54.2(206)
로션	85.5(325)
영양크림	80.8(307)

썬크림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9.5%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20.5%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표

7>. 학력별로는 사용한다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92.7%, 고졸 77.7%, 중졸이하 76.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경제상태별로는 사용한다의 경우 상류층 94.1%, 중류층 80.3%, 하류층 66.7%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연령에 있어서는 55-59세가 84.1%로 가장 높았고,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가 85.14%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

며, 직업의 유무와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썬크림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의 사용계절은 <표 8>과 같았다.

여름 91.7%, 봄 66.2%, 가을 53.0%, 겨울 41.7%순으로, 사용자들이 4계절 사용해야 하는 썬크림을 계절별로 선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복희, 남철현(1998)의 연구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7> 썬크림의 사용여부 %(명)

	사용 한다 79.5(302)	사용하지 않는다 20.5(78)	계 100.0(380)	$\chi^2$
<b>연령(세)</b>				
40-44	76.4	23.6	100(140)	1.73
45-49	80.0	20.0	100(120)	
50-54	80.4	19.6	100(51)	
55-59	84.1	15.9	100(69)	
<b>학 력</b>				
중졸이하	76.1	23.9	100(92)	7.03*
고졸	77.7	22.3	100(233)	
전문대졸이상	92.7	7.3	100(55)	
<b>직 업</b>				
무직, 전업주부	79.3	20.7	100(232)	0.01
유직	79.7	20.3	100(148)	
<b>결혼 상태</b>				
미혼	100.0		100(10)	3.96
기혼	79.6	20.4	100(339)	
독신	71.0	29.0	100(31)	
(이혼, 별거, 사별)				
<b>경제 상태</b>				
상	94.1	5.9	100(34)	10.32**
중	80.3	19.7	100(289)	
하	66.7	33.3	100(57)	
<b>거주 지역</b>				
대도시	85.1	14.9	100(121)	3.48
중소도시	76.9	23.1	100(212)	
읍, 면	76.6	23.4	100(47)	

( p<0.05 \*, p<0.01 \*\* )

**<표 8> 썬크림의 사용계절**  
(복수응답 : N=302)

구 분	%(명)
	100.0(302)
봄	66.2(200)
여름	91.7(277)
가을	53.0(160)
겨울	41.7(126)

피부고민의 원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주름이 49.7%로 가장 높았고, 피부의 잡티가 29.2%, 피부가 검다가 16.6%, 거친 피부가 16.3%, 피부가 당긴다가 15.8%, 고민 없다 6.35%, 기타 4.5% 순이었다<표 9>. <표 8의>의 썬크림 사용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피부고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름이나 피부잡티는 일반적으로 광노화로서, 썬크림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표 9> 피부로 인한 고민의 원인(복수응답: N = 380)**

구 분	%(명)
	100.0(380)
고민없다	6.3(24)
거친피부	16.3(62)
주름	49.7(189)
피부가 당긴다	15.8(60)
피부에 잡티(기미, 주근깨)가 있다	29.2(111)
피부가 검다	16.6(63)
기타	4.5(17)

피부 관련 잡지를 본 후 피부 관리 적용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6.1%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해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다 33.7%, 항상 그렇다

10.3% 순이었다<표 10>. 연령별로는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5세 이상이 21.7%로 가장 높았고,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0-54세에서 가장 높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5-49세가 3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경제상태별로는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상류층에서 14.7%로 가장 높았고, 중류층 11.4%, 하류층 1.8%이었다. 가끔 그렇다의 경우도 61.8%로 상류층에서 가장 높았고, 중류층 58.1%, 하류층 42.1%순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하류층에서 56.1%로 가장 높았고, 중류층 30.4%, 상류층 2.5% 순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 거주지별로는 항상 그렇다의 경우 중소도시가 13.7%, 읍/면지역 6.4%, 대도시 5.8% 순이었고, 가끔 그렇다의 경우 대도시가 60.8%, 중소도시 56.1%, 읍/면지역 44.7% 순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읍/면 48.9%, 대도시 33.9%, 중소도시 30.2% 순이었다(p<0.05). 학력, 직업, 결혼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용 후 오래된 화장품 폐기여부에 대해서는 가끔 그렇다가 49.5%로 가장 높았고, 항상 그렇다 22.1%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8.4%나 되었다<표 11>. 학력별로는 항상 그렇다의 경우 전문대졸이상인 34.5%로 가장 높았고, 고졸 21.0%, 중졸이하 17.4% 순이었다. 가끔 그렇다의 경우도 전문대졸이상인 50.9%로 가장 높았고, 고졸 49.4%, 중졸이하 48.9% 순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중졸이하 33.7%, 고졸 29.6%, 전문대졸이상 14.5%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경제상태 ( p<0.05 \*, p<0.01 \*\* )

<표 10> 피부관련 잡지를 본 후 피부관리 적용여부

%(명)

	항상그렇다 10.3(39)	가끔그렇다 56.1(213)	그렇지않다 33.7(128)	계 100.0(380)	$\chi^2$
<b>연령(세)</b>					
40-44	7.1	56.4	36.4	100(140)	14.31*
45-49	7.5	55.0	37.5	100(120)	
50-54	9.8	62.7	27.5	100(51)	
55-59	21.7	52.2	26.1	100(69)	
<b>학력</b>					
중졸이하	10.9	54.3	34.8	100(92)	9.06
고졸	11.2	52.4	36.5	100(233)	
전문대졸이상	5.5	74.5	20.0	100(55)	
<b>직업</b>					
무직, 전업주부	11.6	58.2	30.2	100(232)	3.76
유직	8.1	52.7	39.2	100(148)	
<b>결혼상태</b>					
미혼	20.0	70.0	10.0	100(10)	6.15
기혼	10.0	56.9	33.0	100(339)	
독신(이혼, 별거, 사별)	9.7	41.9	48.4	100(31)	
<b>경제상태</b>					
상	14.7	61.8	23.5	100(34)	17.92**
중	11.4	58.1	30.4	100(289)	
하	1.8	42.1	56.1	100(57)	
<b>거주지역</b>					
대도시	5.8	60.3	33.9	100(121)	10.96*
중소도시	13.7	56.1	30.2	100(212)	
읍,면	6.4	44.7	48.9	100(47)	

별로는 항상 그렇다의 경우 상류층 41.2%, 중류층 23.2%, 가끔 그렇다의 경우 하류층 54.4%, 중류층 49.8%, 상류층 38.2% 순이었고, 그렇지 않다는 경우 하류층 40.4%, 중류층 27.0%, 상류층 20.6%순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 현 거주지별로는 항상 그렇다의 경우 중소도시 25.5%, 대도시 19.8%, 읍/면지역 12.8%순이었고, 가끔 그렇다의 경우 대도시 52.1%, 중소도시 50.9%, 읍/면지역 36.2% 순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읍/면지역 51.1%, 대도시

28.1%, 중소도시 23.6%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연령, 직업, 결혼상태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전체 응답자들이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점수가 대체로 높은 반면, 오래된 화장품을 폐기하는 행위로의 실천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화장품 구입시 유통기한 확인 여부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37.9%가 항상 그렇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가끔 한다 31.6%이었으며, 그렇지

<표 11> 사용 후 오래된 화장품 폐기여부 %(명)

	항상 그렇다 22.1(84)	가끔 그렇다 49.5(188)	그렇지 않다 28.4(108)	계 100.0(380)	$\chi^2$
<b>연령(세)</b>					
40-44	21.4	55.7	22.9	100(140)	9.98
45-49	19.2	42.5	38.3	100(120)	
50-54	25.5	47.1	27.5	100(51)	
55-59	26.1	50.7	23.2	100(69)	
<b>학 력</b>					
중졸이하	17.4	48.9	33.7	100(92)	9.67*
고졸	21.0	49.4	29.6	100(233)	
전문대졸이상	34.5	50.9	14.5	100(55)	
<b>직 업</b>					
무직, 전업주부	21.6	49.6	28.9	100(232)	0.13
유직	23.0	49.3	27.7	100(148)	
<b>결혼 상태</b>					
미혼	30.0	70.0		100(10)	5.59
기혼	22.1	49.6	28.3	100(339)	
독신(이혼, 별거, 사별)	19.4	41.9	38.7	100(31)	
<b>경제 상태</b>					
상	41.2	38.2	20.6	100(34)	18.01**
중	23.2	49.8	27.0	100(289)	
하	22.1	54.4	40.4	100(57)	
<b>거주 지역</b>					
대도시	19.8	52.1	28.1	100(121)	15.39**
중소도시	25.5	50.9	23.6	100(212)	
읍,면	12.8	36.2	51.1	100(47)	

( p<0.05 \*, p<0.01 \*\* )

않다는 응답도 30.5%나 되었다. 학력별로는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고졸 40.3%, 전문대졸이상 40.0% 중졸이하 30.45 순이었 고, 가끔 한다는 경우 전문대졸이상 47.3%, 중졸이하 30.4%, 고졸 28.3%이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졸이하 39.15, 고 졸 31.3%, 전문대졸이상 12.7%이었다 (p<0.01). 현 거주지별로는 항상 그렇다의 경우 대도시 44.6%, 중소도시 36.3%, 읍/면 지역 27.7% 순이었고, 가끔 한다는 경우는 대도시 34.7%, 중소도시 31.1%, 읍/면지역

25.5% 순으로 모두 대도시 지역이 높았다. 그렇지 않다 경우 읍/면지역이 46.8%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32.5%, 대도시 20.7% 순이었다(p<0.05)이었으며, 연령, 직업, 결혼 상태, 경제상태와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lt;표 12&gt;화장품 구입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확인 여부 % (명)

	항상 그렇다	가끔 한다	그렇지 않다	계	$\chi^2$
	37.9(144)	31.6(120)	30.5(116)	100.0(380)	
<b>연령(세)</b>					
40-44	40.7	28.6	30.7	100(140)	9.84
45-49	30.8	31.7	37.5	100(120)	
50-54	43.1	27.5	29.4	100(51)	
55-59	40.6	40.6	18.8	100(69)	
<b>학 력</b>					
중졸 이하	30.4	30.4	39.1	100(92)	14.89**
고졸	40.3	28.3	31.3	100(233)	
전문대졸이상	40.0	47.3	12.7	100(55)	
<b>직 업</b>					
무직, 전업주부	38.4	29.7	31.9	100(232)	1.04
유직	37.2	34.5	28.4	100(148)	
<b>결혼 상태</b>					
미혼	40.0	50.0	10.0	100(10)	3.96
기혼	37.8	31.9	30.4	100(339)	
독신(이혼, 별거, 사별)	38.7	22.6	38.7	100(31)	
<b>경제 상태</b>					
상	41.2	38.2	20.6	100(34)	3.00
중	36.3	31.5	32.2	100(289)	
하	43.9	28.1	28.1	100(57)	
<b>거주 지역</b>					
대도시	44.6	34.7	20.7	100(121)	12.04*
중소도시	36.3	31.1	32.5	100(212)	
읍,면	27.7	25.5	46.8	100(47)	

(  $p < 0.05$  \*,  $p < 0.01$  \*\* )

#### IV. 고 찰

본 연구에서 피부관리에 관한 지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학력, 직업의 유무, 경제상태, 흡연여부, 일상적인 운동여부 등이었다. 이는 김봉인(1999)의 연구와도 비슷하였다.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김봉인(1999)은 인구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대인관계요인, 상황적요인, 행동적요인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교육수준과 경제상태에 따른 유의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복희, 남철현(1998)도 학력, 경제상태를 피부 관리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분석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고 지적수준이 높을수록 피부 관리에 관한 관심과 지식 또한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권현숙(2001)의 경우는 직업의 유무가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수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중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김봉인(1999)은 피부 관리가 미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실천행위이며 최적의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생활방식의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신체가 건강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일상적인 운동을 즐기는 경우에는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점수도 높았다. 피부 관리를 건강관리의 한 측면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들은 마사지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관심이 있고, 시도해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86.8%가 경험이 있었다. 이 결과는 여대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김인숙(1998)의 연구에서 82.9%가 경험이 없다는 결과와 큰 차이를 보는 부분이며 이는 조사대상자가 각각 중년과 여대생이라는 차이라고 여겨진다. 젊은 여성들은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고 있으므로 소홀해지기 쉽지만, 반대로 중년여성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좋은 피부상태를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년여성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피부전체의 노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인성 노화를 제외하고는 노화의 주범을 자외선이라고 볼 수 있다. 썬크림의 적절한 사용 여부가 여성의 노화방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전체의 20.5%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한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등 김복희, 남철현(1998)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절별 선별 사용이 많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썬크림을 4계절 365

일 사용해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들이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화장품의 구매 및 사용기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습관은 비율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들이 지식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년여성들은 피부 관리 지식은 높은 편이었고, 이는 건강상태와도 상관이 있었으며, 자신의 피부에 대한 관심도 높고, 피부 관리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적극적으로 습관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리적, 정신적 과도기를 겪는 중년여성들에게 있어서 피부 관리는 건강증진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며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다양한 경로의 정보습득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들의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정도와 관리습관을 파악한 뒤,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고찰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25일부터 2003년 3월 24일까지 영남권에 거주하는 40-59세의 여성 380명에게 설문 조사하여 본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 T-test, F-test,  $\chi^2$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요약 및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44세가 36.8%, 학력은 고졸이 61.3%, 직업은 무직, 전업주부가 61.1%,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이 89.2%, 경제상태로는 중류층이 76.1%,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55.8%이었다. 건강수준 및 보건 행태를 살펴보면 건강상태, 피부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5.8%, 63.9%이었고, 음주, 흡연은 하지않는다가 각각 54.5%, 92.9%이었다. 일상적인 운동, 현재의 질병여부는 아니오가 각각 61.8%, 83.7%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점수는 학력, 직업,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0점 만점에 전문대졸이상인 8.11점, 유직이 7.70점, 상류층이 7.68점이었다. 건강수준 및 보건 행태에 따른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점수는 건강상태, 흡연여부, 일상적인 운동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한 편이 7.77점, 흡연을 하지 않는다가 7.53점, 일상적인 운동을 한다는가 7.67점이었다.

3) 가정에서의 마사지 경험여부는 전체의 86.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상인 98.2%,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가 93.4%이었다.

4)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중년여성의 주름관리를 위한 아이크림, 모공관리를 위한 아스트리젠트 등의 사용은 각각 54.2%, 35.3%로 인식이 부족하였다. 썬크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9.5%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 경제상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피부 관련 잡지를 본 후 피부 관리 적용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6.1%가 가끔, 10.3%가 항상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연령, 경제상태, 현 거주지별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6) 화장품 관리에 있어서는 오래된 화장품 폐기여부로는 가끔 그렇다가 49.5%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 경제상태, 현 거주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화장품 구입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9%가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끔 한다 31.6%, 그렇지 않다가 30.5%순이었다. 학력, 현 거주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년 여성의 피부 관리에 관한 지식은 학력, 경제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이는 피부관리 습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중년이라는 특수한 시기의 여성들에게 피부 관련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년의 올바른 피부관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피부건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별매(1996). 잔주름과 탄력저하피부의 개선책. 에스테틱(20), pp.20-23.
- 2) 김귀정, 유경수(1998). 피부 관리용 화장품성분사전. 서울: 도서출판 정담
- 3) 김봉인(1999).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복희, 남철현(1998). 여성의 피부미용 지식 및 행위와 관련요인. 한국보건교육 학회지, 15(1). pp.1-30.
- 5) 김선혜(2001). 지역사회주민의 피부관리 실태와 관련요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인숙(1998). 청주지역 여대생의 미용생활 실태조사 - 화장품 사용을 중심으로-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7) 국홍일(1989). 건강한 피부 고운 살결. 서울: 지문사
- 8) 권영옥, 민정은(2000). 여성의 피부미용 관리에 관한 관심도와 관련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과학연구지, 18 (1).
- 9) 박영호(2000). 한국여성의 피부관리 의식구조. 한국미용학회지, 6(2), pp.405-414.
- 10) 송경아(1997). 일부여성의 생활 행태가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수원여자대학 1종도서 편찬위원회(2002). 피부관리. 서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12) 서연옥(1994).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생활방식에 관한 구조실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신산월(1999). 여성의 피부미용 관리에 관한 관심도 및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전북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조광현(1998). 노화에 따른 피부조직의 변화. 대한피부연구학회지, (5), pp.21-25.
- 15) 하명희, 서의훈(2000). 부산, 마산, 진주지역 피부관리 고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피부건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2), pp.457-470.
- 16) 하명희, 서의훈(1999). 진주시 피부관리 고객의 피부건강상태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2), pp.665-679.
- 17) Christiane Northrup M.D.(2001). The Wisdom of Menopause, Bantam Double day Dell Pub
- 18) Ekstein(1994). Biokosmetik, Verlag Wenng Druck Gmbh,
- 19) <http://www.oldskin.co.kr>
- 20) <http://www.totalbeauty.co.kr>
- 21) <http://www.korea.ac.kr/~risi>